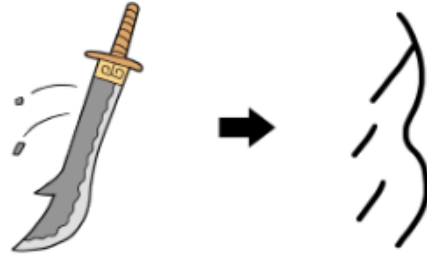


3(2) - 161	
默	형성문자 ① 뜻을 나타내는 동시(同時)에 음(音)을 나타내는 검은흑(黑 ⇨ 검다→묵)部와 犬(견)이 합(합)하여 이루어짐. 犬(견 ⇨ 개)과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黑(흑→묵)으로 이루어지며, 개가 입을 다물고 있다는 뜻을 나타냄. 전(轉)하여 말을 하지 않다, 말을 안하다의 뜻으로 쓰임.
잠잠할 묵	
3(2) - 162	
紋	형성문자 ① 뜻을 나타내는 실사(糸 ⇨ 실타래)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동시(同時)에 「무늬」의 뜻을 가진 文(문)으로 이루어짐. 실로 짜서 나타낸 무늬 ⇨ 「무늬」의 뜻.
무늬 문	

3(2)  
-  
163

상형문자 ①



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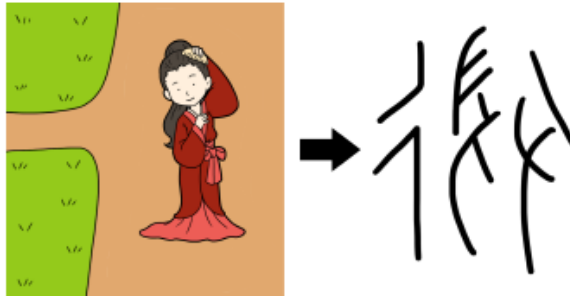
말[禁]  
물

勿자는 '말다'나 '아니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여기서 '말다'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라는 뜻이다. 勿자는 勹(쌀 포)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싸다'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갑골문에 나온 勿자를 보면 刀(칼 도)자 주위로 점이 찍혀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칼로 무언가를 내려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勿자는 이렇게 칼을 내리치는 모습에서 '~하지 말아라'와 같은 금지를 뜻을 나타내고 있다. 파편이 주변으로 튀는 것을 나무라던 것이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164

회의문자 ①



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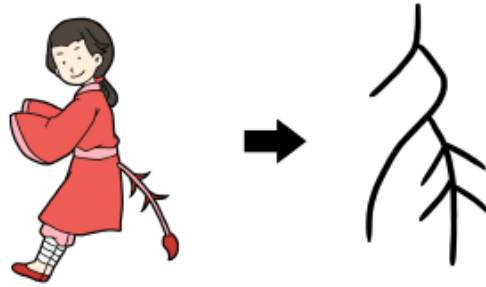
작을 미

微자는 '작다'나 '정교하다', '꼼꼼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微자는 彳(조금 걸을 척)자와 敝(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敝 머리칼을 빗어 넘기는 여자를 그린 것으로 '가늘다'라는 뜻이 있다. 微자는 이렇게 '가늘다'라는 뜻을 가진 敝자에 彳자가 결합해 '좁은 길'이나 '오솔길'을 뜻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작다'나 '정교하다'라는 뜻으로만 쓰이고 있다.

갑골문	소전	해서

3(2)  
-  
165

회의문자 ①



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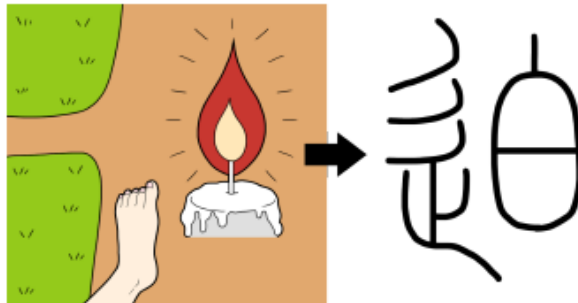
꼬리 미:

尾자는 '꼬리'나 '끝'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尾자는 尸(주검 시)자와 毛(털 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갑골문에 나온 尾자를 보면 尸자 아래로 긴 꼬리가 毛 달려 있었다. 이것은 축전을 벌일 때 동물의 꼬리를 매달은 모습을 그린 것이다. 尾자는 이렇게 '꼬리'를 표현한 글자이지만, 꼬리는 신체의 끝부분에 있다 하여 '끝'이나 '뒤쪽'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166

회의문자 ①



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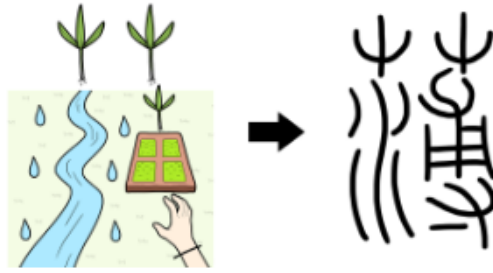
핍박할  
박

迫자는 '핍박하다'나 '다급하다', '가까이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迫자는 辵(쉬엄쉬엄 갈 착)자와 白(흰 백)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白자는 촛불을 환하게 밝힌 모습을 그린 것으로 '희다'나 '깨끗하다'라는 뜻이 있다. 迫자는 본래 '가까이하다'나 '친하다'라는 뜻을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래서 迫자에 쓰인 白자는 '순수하다'나 '깨끗하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둘 사이에는 거리감이 없을 정도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迫자는 후에 본래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핍박하다'나 '다급하다'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었다.

소전	해서

3(2)  
-  
167

회의문자 ①



薄

얇을 박

薄자는 '얇다'나 '얕다', '야박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薄자는 艸(풀 초)자와 溥(넓을 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溥자는 강 옆 넓은 논밭에 모종을 펼쳐 심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넓다'나 '퍼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薄자는 이렇게 모종을 심는 모습을 그린 溥자에 艸자를 더한 것으로 "풀이 때 지어 자라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후에 '얇다'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본래의 의미는 더는 쓰이지 않고 있다.

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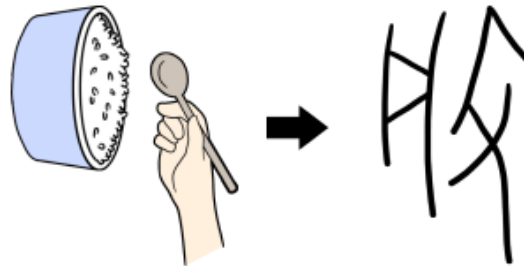
소전

薄

해서

3(2)  
-  
168

회의문자 ①



般

가지/일반 반

般자는 '일반'이나 '가지런한 모양', '나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般자는 舟(배 주)자와 攴(몽둥이 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般자에 舟자가 쓰였기 때문에 이것이 배와 관계된 글자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갑골문에 나온 般자를 보면 밥그릇과 수저만이 그려져 있었다. 般자는 본래 '쟁반'이나 '받침'이라는 뜻의 盤(소반 반)자 이전의 글자였다. 갑골문에서는 밥그릇과 수저를 함께 그린 般자가 '소반'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후에 밥을 먹는 일은 매우 '일상적이다'라는 뜻이 확대되면서 지금은 '일반적이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금문에서는 여기에 皿(그릇 명)자를 더한 盤자가 '소반'이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참고로 소전에서는 밥그릇이 舟자가 되었고 수저를 들고 있는 손은 攴자로 잘 못 바뀌면서 본래의 의미를 알기 어렵게 되었다.

般

갑골문

般

금문

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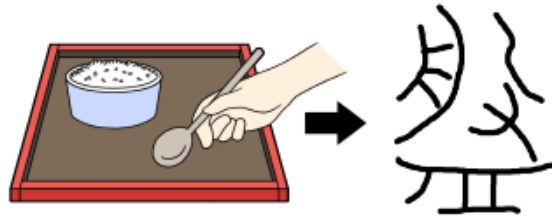
소전

般

해서

3(2)  
-  
169

회의문자 ①



盤

소반 반

盤자는 '소반'이나 '쟁반'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盤자는 般(일반 반)자와 皿(그릇 명)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般자는 그릇에 담긴 음식을 수저로 푸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본래 의미는 '소반'이었다. 그래서 '소반'이라는 뜻은 般자가 먼저 쓰였었다. 그러나 후에 밥을 먹는 일은 매우 일상적이라는 뜻이 확대되면서 '일반적이다'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었다. 그래서 금문에서는 여기에 皿자를 결합한 盤자가 음식을 올려놓은 '소반'이나 '쟁반'을 뜻하게 되었다. 참고로 盤자에 쓰인 舟(배 주)자는 갑골문에서의 그릇이 잘못 바뀐 것이다.

盤

금문

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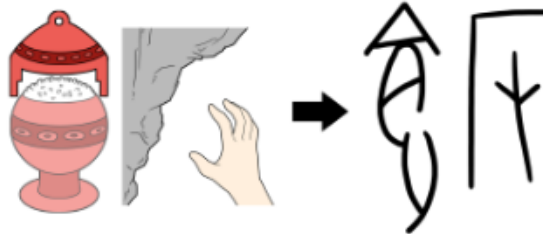
소전

盤

해서

3(2)  
-  
170

형성문자 ①



飯

밥 반

飯자는 '밥'이나 '식사', '먹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飯자는 食(밥 식)자와 反(되돌릴 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反자는 손으로 무언가를 뒤집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 역할만을 하고 있다. 사실 사전상으로 보면 飯자와 食자는 같은 뜻을 갖고 있다. 다만 이전에는 食자가 주로 '먹다'나 '음식' 자체만을 뜻했었다면 飯자는 곡식(穀食) 위주의 식사를 뜻했었다. 하지만 지금의 食자와 飯자는 관습적으로만 구분할 뿐 의미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飯

금문

飯

소전

飯

해서